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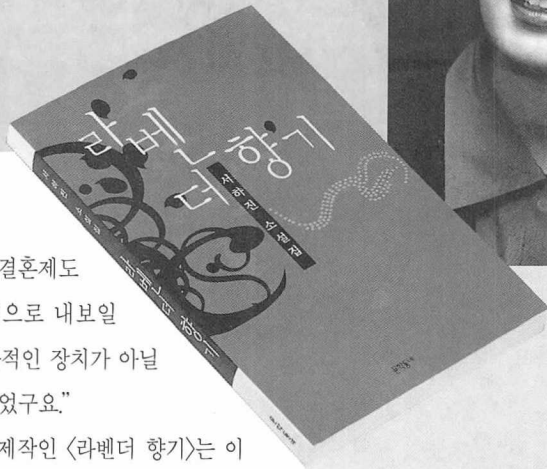
소설로 쓴 '불륜의 현상학'

소설집 《라벤더 향기》 펴낸 서하진씨

“본격적으로 불륜을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불륜이야말로 결혼제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단편 〈불륜의 방식〉은 ‘불륜의 허위의식’을 다룬 작품이죠. 허위를 벗어나기 위해 저질렀던 불륜이 또 다른 허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하진씨



문학동네/A5신/304면/7500원

서하진씨(40, 재능대 문창과 교수)가 펴낸 세번째 소설집 《라벤더 향기》(문학동네)는 그의 이전 소설집 《책 읽어주는 여자》와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이상 문학과지성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집이다. 이번 소설집 역시 도시인의 일상생활과 결혼생활을 해부한 10편의 단편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 소설집에는 전작들과는 다른 향기가 흐르고 있다. ‘라벤더 향기’라고 인쇄된 책표지를 들치는 순간, 책 속에 잠자고 있던 “오래 묵은 상처에서 나는 듯한,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역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불륜’의 향기다.

‘불륜’에 관한 문학적 보고서

이번 소설집에서 불륜이 보여주는 의미의 층위는 다양하다. 불륜은 ‘씩어가는 오물의 냄새’를 풍기는 거짓의 일상을 견디는 방식이기도 하며, 일상의 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해 주인공이 가진 ‘비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생활에 지친 30대 중반 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하며 억압적인 가족구조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가 방송대에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하더군요. ‘요즘 불륜을 다룬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무늬만 불륜일 뿐이다. 불륜의 지저분한 속성을 파헤친 작품은 없다. 모두가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라구요. 그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불륜을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륜이야

말로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이 소설집의 표제작인 〈라벤더 향기〉는 이런 ‘불륜의 현상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은 “출장중일 때가 더 많은, 언제나 출장 중”인 남편을 둔 중산층의 주부. 그를 지탱해주는 것은 미스터리 애정물 비디오 시청과 인공 화분에 심어져 있는 꽃의 향기에 맞는 방향제 뿌리기, 그리고 7층 남자와 맺는 ‘부적절한 관계’다. 하지만 어느날,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가 저질렀던 불륜이 드러나고 그동안의 허울 좋았던 삶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단편 〈불륜의 방식〉은 ‘불륜의 허위의식’을 다룬 작품이죠. 이 소설에 나오는 화자는, 유부남과 사귀는 직장동료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스로가 도덕적이라고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친구 오빠와의 불륜 역시 그가 혐오했던 불륜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소설집 전편에는 향수냄새와 꽃냄새가 가득하다. 그 향기는 ‘갓가지 악취들이 녹아 있는 야릇한 냄새’로 악취를 풍기는 현실을 덮어준다. 작품 말미에서 그 향기롭던 냄새는 지독한 악취로 변하고, 그 악취는 어김없이 구토를 동반한다. 이는 곧 허위를 벗어나기 위해 감행했던 불륜, 혹은 일탈의 방식 역시 또 다른 허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벤더 향기〉를 쓸 당시, 미시족 사이에서는 허브 키우기가 일대 유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삭막한 일상을 포장하기 위해 인간 힘을 쓰는 속물근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첫 장편소설 펴낼 계획

이번 소설집은 그가 쉽게 써보리라 마음 먹고 쓴 책이다. 하지만 성공도 실패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이전의 소설들이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내 소설에 너무 과도한 자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좀 쉽고 재미있게 써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깊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는 소설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소설쓰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소설을 쓸 뿐이다. 심심하면서도 씹쓸한 맛을 내는 차와 같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그는, 얼마 전 달고한 장편소설을 손질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최갑수 기자